

휴스턴의 알곳은 비...LPGA 챔피언십 1R 축소

# 신지애, 선두 오초아와 4타차 남은 36홀서 뒤집기 가능할까

## ‘올해의 선수’ 내일 결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시즌 마지막 대회인 LPGA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50만달러)이 비 때문에 이틀째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휴스턴리안 골프장(파72·6천650야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 3일째 2, 3라운드는 계속된 비로 연기됐다. LPGA 투어는 “23일 마칠 예정이던 대회를 하루 연장해 24일까지 54홀 경기로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직 2라운드를 마친 선수가 한 명도 없는 것은 물론 2라운드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선수가 절반에 가까운 57명이나 된다. 4라운드 대회가 3라운드로 줄어든 것은 신지애(21·미래에셋)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현재 올해의 선수, 최저타수, 다승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1라운드까지 6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올라 있는 반면 역시 1라운드까지 마친 신지애는 2언더파로 공동 12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156점으로 1위인 신지애는 148점(2위)의 오초아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선두 자리를 내줘야 한다. 따라서 신지애로서는 첫날 뒤

진 4타를 만회할 기회가 줄어든 셈이다. 특히 최저타수 부문 1위 탈환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70.22타로 오초아가 1위, 70.27타로 신지애가 2위인 가운데 신지애는 이번 대회에서 오초아보다 4타를 덜 쳐야 역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라운드에서 오히려 4타를 뒤쳐 남은 라운드에서 8타 차를 내야 하는데 36홀에서 오초아보다 8타나 더 좋은 성적을 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비라는 변수를 만난 신지애와 오초아가 남은 라운드에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골프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연합뉴스



“올해의 선수 트로피는 내 것” 신지애가 21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LPGA 투어 2009 시즌 시상식에서 오초아가 들고있는 올해의 선수상 트로피를 빼앗으려는 재미있는 포즈를 취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연합뉴스



## 서희경 을 4관왕

KLPGA ADT챔피언십 우승  
 상금·다승왕·대상 등 휩쓸어

“필드의 모델” 서희경(23·하이마트·사진)이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을 시즌 마지막 투어인 ADT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상금왕과 다승왕 등 KLPGA 4관왕을 휩쓸었다.

지난 대회인 한국여자마스터즈에서 대상을 확정 지은 서희경은 이날 우승으로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까지 더하면서 KLPGA 4관왕으로 국내 정상에 올랐다.

서희경은 22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 스키힐골프장(파72.6천29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몰아쳐 3라운드 합계 6언더파 210타로 우승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서희경은 을 시즌 5승으로 4승의 유소연(19·하이마트)을 제치고 다승왕을 차지했다. 또 이 대회 우승 상금 6천만원에 더하면서 총 상금 6억6천376만원으로 역시 2위 유소연(5억9천786만원)을 6천만원 가량 따돌리며 상금왕이 됐다. 서희경은 이번 대회에서 6언더파를 기록, 을 시즌 18경기 평균 타수가 70.51타로 안선주(22·하이마트·70.61타)에 앞서며 최저타수 상도 뒀다.

마지막 대회까지 서희경과 상금왕 다승왕 경쟁에 나섰던 유소연(19·하이마트)은 이날 한 타를 줄이면서 합계 6오버파 222타로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LPGA에 이름 남기는 선수 되고 싶다”

## ■ 신인상 수상 신지애

“골프 지존” 신지애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시즌 신인상을 수상했다. 신지애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LPGA 투어 2009시즌 시상식에 참석해 신인상을 품에 안았다. 화려한 드레스로 멋을 낸 신지애는 이날 신인상을 받은 뒤 “그동안 말로만 신인왕이 됐다고 얘기가 듣다가 이렇게 시상식에 나와 축하도 받고 하니 실감이 난다. 영어로 연설하려니 준비를 했지만 많이 떨렸다”며 “오늘 LPGA

설립자인 루이스 서그스도 함께 했는데 나도 그분처럼 LPGA에 이름을 남기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미 지난해 LPGA 투어 비회원으로 세 차례나 우승했지만 정식 회원으로는 첫해를 보낸 신지애는 시즌 마지막 대회가 남았지만 신인왕 포인트 1천546점으로 2위 위성미(20·나이키골프)의 914점을 여유 있게 앞서며 일찌감치 신인왕을 확정 지었다. 신인왕 정식 명칭이 ‘루이스 서그스 롤렉스 신인왕’인만큼 신지애도 나중에 LPGA 투어에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선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신인왕 시상식을 통해 밝힌 셈이다.

신지애는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156점으로 148점으로 2위인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앞서 있어 1978년 낸시 로페스(미국) 이후 31년 만에 신인왕과 올해의 선수 석권을 노리고 있다. 특히 이미 결정된 상금왕 부문에서는 역시 1978년 로페스가 갖고 있던 최연소 기록을 새로 썼고 올해의 선수가 되면 이 역시 최연소가 된다. 또 상금 177만달러를 벌여 지난해 청야니(대만)가 세웠던 신인 최다 상금 기록 175만달러를 이미 뛰어넘었다. 대회 수는 34개에서 27개로 줄었지만 대회 하나를 남긴 상황에서 신인 최다 상금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밖에 신지애는 지금 열리고 있는 LPGA 투어 챔

피언십에서 우승해 상금 22만5천달러를 받을 경우 25개 대회만에 상금 200만달러를 넘어 최단 기간 상금 200만달러 돌파 기록도 세울 수 있다. LPGA 데뷔 첫 해부터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아직 수상자가 결정되지 않은 올해의 선수와 최저타수 부문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이어져 신지애와 오초아가 나란히 단상에 올라 진행 중인 이번 대회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기념 촬영 시간에는 3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오초아가 올해의 선수 트로피를 들고 이것을 신지애가 뺏으려는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기도 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올해 처음 우승을 맞은 선수는 모두 7명으로 신지애 외에 최나연(22·SK텔레콤), 이은정(21, 허미정(20·코오롱), 위성미,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미야자토 아이(일본) 등이었다. /연합뉴스

## 호랑이들 ‘산의 정기’ 받는다

### 최희섭 설악산행 이어 서재응도 입산 채비

KIA 타이거즈에서 대표적인 ‘산사랑’으로 꼽히는 인물은 조범현 감독과 내야수 최희섭이다. 시즌 중 조범현 감독은 이른 오전 산에 오를 뒤에야 경기장으로 출근하곤 했다. 무등산은 조 감독이 즐겨 찾는 코스. 하지만 최근 몸이 안좋아 병원에 입원하면서 산과의 인연은 잠시 끊어두고 있다. 최희섭의 산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주전급 선수들이 일본에서 온전훈련을 하는 동안 최희섭은 산을 선택했다. 한·일클럽챔피언십을 끝내고 곧바로 귀국했던 최희섭은 그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산행과 웨이트를 해왔다.

21일에는 설악산으로 떠났다. 25일 우승여행에 앞서 2박3일 일정으로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해 말 최희섭은 2008년을 정리하기 위해 나지완과 설악산 등반을 준비했지만 폭설로 인해 산에 오르지 못했다. 산은 을 시즌 최희섭의 부활의 발판이 됐다. 최희섭은 지난해 약광 같은 부진을 딛기 위해 산으로 올라 자신과의 싸움을 했다. 산행을 통해 찬찬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체력 강화와 체중감량에도 큰 도움이 됐다. 산에 오르면서 20kg 가까이 체중감

량을 해 잔부상도 사라졌고, 체력이 좋아지면서 꾸준한 시즌을 보낼 수 있었다. 산을 통해 제 2의 야구 인생을 연 최희섭은 설악산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른 해를 위한 청사진을 그릴 계획이다. 최희섭은 KIA 선수들에게는 산 전도사다. 지난해 12월 포항자재 캠프에서 나지완과 안치홍 등을 이끌고 산을 오르내리며 후배들을 독려했다. 이들에게도 산행은 자연스러운 훈련이 됐다. 을 시즌 부상으로 신음했던 서재응도 ‘제 2의 최희섭’이 되겠다며 산행을 자처하고 있다. 남해 마두리캠프에서도 산행은 빠질 수 없는 훈련 코스가 되는 등 KIA의 ‘산사랑’이 뜨겁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종범 ‘무릎팍...’ 김상현 ‘출발드림’

KIA 선수들 인기 타고  
 TV 예능프로 잇단 출연

KIA 타이거즈의 인기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시리즈가 끝난 지도 한 달이 되어가지만 2009챔피언 KIA 선수들의 스키텔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한·일클럽챔피언십이 끝난 뒤 일본 벵부에서 온전 훈련을 해왔던 ‘온천조’가 21일 귀국했다. 이들 중 이종범·김상현·나지완은 짐을 풀자마자 22일 KBS 출발드림 팀 시즌2 촬영을 위해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를 찾았다. 국내에서 훈련중이던 안치홍·양현종·서재응도 합류해 오후 1시30분부터 촬영을 했다. 촬영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KIA 선수들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특히 단국대학교 야구부 출신

인 나지완은 모처럼 찾은 모교에서 후배들의 응원환영을 받기도 했다. 이날 촬영분은 내달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KBS 2TV에서 방송된다. 한국시리즈 우승 이후 KIA에는 일상적인 인터뷰는 물론 방송출연을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신에 좌완 양현종은 케이블 TV와 공중파 방송 등 세 차례 방송에 출연하며 최고의 인기를 구사했다. ‘아기호랑이’ 안치홍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백전노장 이종범도 MBC의 인기프로그램 무릎팍 도사에 출연해 자신의 야구 인생을 풀어놓았다. 지난 4일 녹화된 이종범의 야구이야기는 오는 25일과 12월2일 2회에 걸쳐 방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타골드벨, 세마퀴, 사랑의 리퀘스트 등 각 방송사들의 내노라 하는 프로그램 등에서 KIA에 러브콜을 보내왔

<p><b>2009년 11월 23일</b></p> <p><b>경기 결과</b></p> <p>1. LG vs SK : 1-0 (승리)</p> <p>2. KIA vs 롯데 : 2-1 (승리)</p> <p>3. 삼성 vs 두산 : 3-2 (승리)</p> <p>4. NC vs 롯데 : 1-0 (승리)</p> <p>5. SK vs LG : 2-1 (승리)</p> <p>6. 롯데 vs KIA : 1-0 (승리)</p> <p>7. 두산 vs 삼성 : 2-1 (승리)</p> <p>8. 롯데 vs NC : 1-0 (승리)</p>	<p><b>주요 뉴스</b></p> <p>1. 최희섭 설악산행</p> <p>2. 서희경 4관왕</p> <p>3. 신지애 신인상 수상</p> <p>4. 이종범 김상현 TV 출연</p>	<p><b>스포츠 뉴스</b></p> <p>1. 최희섭 설악산행</p> <p>2. 서희경 4관왕</p> <p>3. 신지애 신인상 수상</p> <p>4. 이종범 김상현 TV 출연</p>	<p><b>지역 뉴스</b></p> <p>1. 광주</p> <p>2. 전남</p> <p>3. 전북</p> <p>4. 경남</p> <p>5. 경북</p> <p>6. 충청</p> <p>7. 호남</p> <p>8. 제주</p>	<p><b>경제 뉴스</b></p> <p>1. 코스피</p> <p>2. 코스닥</p> <p>3. 금리</p> <p>4. 환율</p> <p>5. 부동산</p> <p>6. 자동차</p> <p>7. 항공</p> <p>8. 해운</p>	<p><b>문화 뉴스</b></p> <p>1. 연예</p> <p>2. 음악</p> <p>3. 미술</p> <p>4. 문학</p> <p>5. 공연</p> <p>6. 방송</p> <p>7. 출판</p> <p>8. 전시</p>	<p><b>사회 뉴스</b></p> <p>1. 정치</p> <p>2. 외교</p> <p>3. 교육</p> <p>4. 보건</p> <p>5. 환경</p> <p>6. 노동</p> <p>7. 인권</p> <p>8. 복지</p>	<p><b>국제 뉴스</b></p> <p>1. 아시아</p> <p>2. 유럽</p> <p>3. 아프리카</p> <p>4. 중남미</p> <p>5. 중동</p> <p>6. 국제기구</p> <p>7. 외교</p> <p>8. 군사</p>
---	---	--	---	---	---	---	---